

17세기 일본 전래 朱子學書의 간행

- 山崎闇齋의 『文會筆錄』 卷1 「小學」의 인용문헌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and the Publication the Doctrine of Chu-tzu

- Based on the Quoted Literatures of *Bun-kai-hi-tsu-ro-ku*(文會筆錄) 卷1 「小學」 -

이 유 리 (Lee, You-l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17세기 일본에서 간행된 『소학』 주석서 |
| 2. 『文會筆錄』의 판본과 체제 | 3.2 『문화필록』 권1 「소학」의 인용방식 및 인용문헌 |
| 2.1 『문화필록』의 판본 | 3.3 인용된 주자학서의 일본 간행시기 |
| 2.2 『문화필록』의 체제 | 4. 맺음말 |
| 3. 권1 「소학」에 참고된 『소학』 주석서 및 인용문헌의 일본 간행 | <참고문헌> |

<초 록>

山崎闇齋(아마자키 안사이, 1618~1682)는 17세기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고,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중국과 조선에서 전래된 서적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새로운 지식과 상업출판의 성장하던 시기에 주자학을 주희의 뜻에서 충실하게 연구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문화필록』은 주자학에서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소학』·『근사록』·『사서오경』 등 여러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각 내용에 대하여 다른 문헌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안사이가 각각의 주요 주자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서적을 접하였는지는 물론, 이들 서적들은 결국 적어도 일본에 전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 주자서에 대한 동아시아 출판 경향 및 서적 교류에 대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시작점으로 『문화필록』 권1 「소학」에 한하여 인용된 문헌과 그 일본 간행 여부를 판종 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용문헌에는 송대 학자들이 편찬한 주자학서를 중심으로 역사서와 문집, 경서 등이 활용되었고, 중국의 지리나 불교용어나 비판하기 위한 근거 및 의학적 지식과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경우 그에 맞는 역사서, 불서 및 의서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인용문헌의 간행은 일본 근세 초간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근세 초에 잠시 사용되었던 고헌자본부터 있었는데, 이들 서적 중에는 중세에 이미 일본에서 간행된 것도 있었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dreamy6214@naver.com)

접수일: 2014년 12월 9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4일

다. 간에이 연간 고향자본 인쇄가 쇠퇴하고 상업출판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목판 인쇄가 주를 이뤘는데, 인용문헌 중 일본 간본 대부분은 이 시기 이후의 것들이며, 이들 저본은 대부분 중국 명말의 간본이었다. 또한 이들 서적은 모두 일본에서 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안사이가 일본에 들어온 중국본을 그대로 입수해서 봤을 것으로 보인다.

要語: 『문화필록』, 주자학서, 일본 근세 출판, 인용문헌, 『소학』, 서적교류

<ABSTRACT>

Japan in the 17C is the age of change, because of change of regime by Tokugawa Ieyasu(徳川家康, 1543~1616) and starting to study the doctrines of Chu-tzu in earnest. Yamazaki Ansai(山崎闇齋, 1618~1682) is Japanese confucian scholar in the 17C who studied the doctrines of Chu-tzu faithfully according to Chu-tzu's idea. *Bun-kai-hi-tsu-ro-ku*(文會筆錄) is his writing, that is quoted from the most basically text in the doctrines of Chu-tzu like *So-hak*(小學) · *Geun-sa-rok*(近思錄) · *Sa-seo-o-gyeong*(四書五經) etc. Therefore this book can use not only to understand his idea but also to research the books to flow in Japan in the 17C.

This research is about publish and circulation the books of the doctrines of Chu-tzu in Japan in the 17C based on *Bun-kai-hi-tsu-ro-ku*. So this research's aim at analyse publication Japanese the doctrines of Chu-tzu and circulation of that books to research their origin script like Chinese copies and Jo-seon's copies.

As a result, there are many kind of the quoted books written by scholars on the Song's period like history, collection of works of many scholars, scriptures of Confucianism, medicine, etc. And there are 3 kinds of the text that are original scripts in the publishing quoted books of *Bun-kai-hi-tsu-ro-ku* in Japan in the 17C.

Key words: *Bun-kai-hi-tsu-ro-ku*, the doctrines of Chu-tzu, quoted books, quoted literature, *So-Hak*, Japanese publication in the modern ages, introducing the books in the East Asia

1. 머리말

전근대까지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불교를 빼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기존에 잘 알려진 『古事記』 및 『日本書紀』를 비롯하여, 891년에 작성된 『日本國見在書目』과 같은 문헌기록이나, 金澤文庫¹⁾의 장서인이 찍힌 宋元本이 현존하고 있음을 통해 소량이지만 꾸준히 유학 경전이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정된 신분이었지만 몇몇 집안 중심인 博士家에서 義疏學의 전통이 전승되고 있었고, 足利學校²⁾에서 역학 중심의 유학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 꾸준히 유학이 수용되고 있었다.

중세까지의 이러한 흐름이 16세기 말부터는 변화를 맞이하여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시작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藤原惺窩(후지와라 세이카, 1561~1619)였지만,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주자학자의 면모를 갖춘 것은 山崎闇齋(야마자키 안사이, 1618~1682)라고 보고 있다.

야마자키 안사이는 한국에서는 퇴계 이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³⁾ 그는 중국과 조선에서 朱熹 이후의 주석이 달린, 科擧를 위해 편찬된 ‘大全’을 주요 텍스트로 삼았던 林羅山(하야시 라잔, 1583~1657)을 비판하였고, 『朱子文集』 및 『朱子語類』 등과 같은 주희가 뜻한 바의 의미를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서적들을 정독하였다.⁴⁾ 이후에 그의 학문 성향이 神道로 전이된 면모가 보이나, 어찌되었든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자학의 기본이자 핵심이라

1) 鎌倉시대인 建治 원년(1275) 北條實時에 의해 창건된 문고. 현재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위치하였다.

2) 室町시대부터 戰國시대까지 關東지역의 最高學府. 최초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재건자는 上杉憲實(1410~1466)로 알려져 있다.

3) 이는 阿部吉雄의 연구(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東京大學出版會, 1978))를 대표로 하여 알려져 있으나, 반면 야마자키 안사이의 학문이 주자학과 동시에 神道적인 성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영향 관계를 최소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다지리 유이치로著, 엄석인 譯, 『야마자키 안사이, 일본적 주자학의 원형』(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 엄석인, “李退溪의 思想과 山崎闇齋學派 관계의 재검토,” 『退溪學報』 126(2009)).

4) 市來津由彦, “山崎闇齋『大和小學』考 - 中國新儒教の日本の展開管見 -, ” 『國際文化研究科論集』 1(1994), 252.

할 수 있는 『四書集註』 및 『近思錄』 등과 같은 텍스트로 한정하였으며, 시문을 금지하여 철저히 주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하였다.⁵⁾ 또한 『大和小學』·『拘幽操』 등의 저서와 『四書』·『近思錄』·『小學』과 같이 주자학의 기본서에 훈점을 매기는 등 근세 일본 사상사에서 안사이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안사이가 일본 주자학의 중심인물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주자학을 공부하기에 풍족한 환경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승려의 신분으로 주자학을 접하기 시작한 1630년대에는, 에도 막부 초기 막대한 양의 책이 나가사키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와 있었고,⁶⁾ 교토에서 상업 출판이 급증하던 때였다. 따라서 주자학이 진지하게 학습되기 시작하던 이때에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학문적 기반이 약했으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안사이가 처음 주자학을 접한 도사(土佐)⁷⁾는 교토를 비롯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서적을 구하기 더욱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즉, 처음에는 주어진 제한적인 환경에서 낮은 외래의 학문을 받아들였고, 이후 환속 후 좀 더 나아진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어떠한 새로운 사상과 학문이라고 해도, 주로 서적을 통해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아 습득하여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저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인물의 생각을 엿볼 수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인물이 자신의 지식과 사상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한 여러 문헌을 통해 당시 그 사회에 유통되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의 내용과 양에 대해서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다.

『문회필록』은 일본에 주자학이 수용되어 발전해나가는 시기인 17세기에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야마자키 안사이가 1682년 죽기 직전까지 매진했던 책이다. 간행은 이듬해 1683년에 이루어졌다. 이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책은 안사이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보다는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텍스트를 대상으로 각각 중요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해설과 의견을 언급해두었다.⁸⁾ 따라서 내용은 주로 인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출처를 본문 중에

5) 미나모토 료엔 著, 박규태·이용수 譯, 『도쿠가와 시대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2004), 47.

6) 오오키 야스시 著, 노경희 譯,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출판, 2007), 270.

7) 지금의 시코쿠(四國) 고치현(高知縣).

서나 附記를 통해 밝혔기 때문에 해당 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사이가 이용한 문헌 내역은 물론, 당시 일본에 그 문헌이 전래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필록』과 관련된 학문적 성과는 일본에서 먼저 권1 「小學」과 권3 「四書」에 대한 번역 및 주석 작업이 이루어진 것⁹⁾이 있다. 원전의 한문을 고전 및 현대 일본어로 번역을 했을 뿐 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인용 부분의 출처나 원문 및 인용문헌의 실제 여부와 간단한 간본 소개 등 꼼꼼하게 주석을 달았다. 또한 야마자키 안사이의 주자학적인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인 주자학과 神道적인 성향¹⁰⁾ 및 퇴계 이황과의 관련성,¹¹⁾ 그리고 안사이의 학문의 일본화¹²⁾ 등 주로 사상사적인 면에서 기본 자료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아직 『문화필록』 판본 자체 및 인용문헌에 대한 서지적 연구 및 서적교류사 등에 대한 문헌 중심의 연구는 없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이 방면에서의 자료적 가치가 비교적 덜 부각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그 시작점으로 『문화필록』 권1 「소학」에 한하여 먼저 『문화필록』의 판본과 체제, 그리고 인용은 물론, 해당 권의 전반적인 내용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7세기까지 일본에서 간행된 『小學』 주석서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나서 인용문헌의 내역을 알아보고, 그 중 주자학서에 한하여 일본에서의 간행여부를 다시 판종 별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문화필록』이 가지는 문헌학적 연구의 자료적 가치를 확인하면서, 17세기 일본에 새롭게 들어온 지식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형성되어 나갔는지에 대한

-
- 8) 田尻祐一郎・前田勉, “山崎闇齋『文會筆錄』卷1「小學」釋稿,” 1, 『季刊日本思想史』 17(ベリカン社, 1981), 114.
- 9) 田尻祐一郎・前田勉, “山崎闇齋『文會筆錄』卷1「小學」釋稿” 1-4, 『季刊日本思想史』 17-20(ベリカン社, 1981~3). ; 本村昌文, “山崎闇齋『文會筆錄』卷3「四書」大學譯注稿” 1-3, 『季刊日本思想史』 71・73-74(ベリカン社, 2007~2009).
- 10) 嚴錫仁, “朱子後繼者としての山崎闇齋の思想營爲: 理氣論を中心として,” 『日本研究』 8(2000).
- 11)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 성과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東京大學出版會, 1978)가 있다.
- 12) 市來津由彦, “山崎闇齋『大和小學』考 - 中國新儒教の日本的展開管見 -, ” 『國際文化研究科論集』 1(1994).

하나의 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2. 『文會筆錄』의 판본과 체제

2.1 『문회필록』의 판본

『문회필록』은 현존본에서 두 서사의 간기가 확인된다. 하나는 壽文堂에서 간행한 것으로 간기는 “天和三年癸亥曆 五月吉旦 二條通松屋町 壽文堂藏板”이고, 다른 하나는 風月堂의 것으로 간기는 “天和三年癸亥曆 五月吉旦 二條通 風月堂藏板”이라 되어 있다. 두 판본의 서지사항은 동일하며, 모두 天和 3년(1685)에 간행되었다. 따라서 간행처 외에는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두 서사가 위치한 곳이 京都의 二條通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더라도, 간행한 날짜까지 동일한데, 같은 날 다른 두 서사에서 같은 판본으로 간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에도시대에는 후쇄본이라도 간기의 날짜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 따라서 이 책 역시 한 서사의 간본은 후쇄본인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말, 서사 간의 판권 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이를 의식하여 서적목록에 板元을 표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런 목록 중 『문회필록』의 간행 시점 이후 가장 가까운 시기인 元祿 9년(1696)에 간행된 『增補書籍目錄大全』에는 ‘武村市’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堂號인 壽文堂 외에도 쓰이는 武村市兵衛(다케무라이치베에)라는 인명이다. 다케무라이치베에는 야마자키 안사이의 문하이기도 하였는데,¹³⁾ 야마자키 안사이의 훈점본 및 주석본 중에는 이곳에서 간행된 것이 적지 않다. 『증보서적목록대전』에 기재된 이러한 서적 중 간행연도가 확실한 것은 『本朝改元考』(延寶 5년(1677))·『張書抄略』(延寶 7년(1679))·『狗幽操』(元祿 5년(1692))·『明備錄』(寬文 12년(1672))이 있고, 그 밖에 『四書白文』(訓點)·『小學本義』·『小學本注[註]』·『雲谷記』·『經名考』·『武銘』·『孝經外傳』·

13) 岡直養 編, 楠本碩水 外 補, 『崎門學脈系譜』(1903).

『五友詩』·『洪範全書』·『堯曆』·『朱子社倉法』 등이 있다. 또한 조선본을 간행 하기도 하였는데, 퇴계 이황의 『易學啓蒙傳疑』·『朱子行狀』·『聖學十圖竝戊辰封事』, 그리고 『易學啓蒙補要解』 등이 있다. 따라서 서목과 학연에 따른 밀접한 출판 관계로 인해 壽文堂이 먼저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표 1>은 『문화필록』의 현존본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문화필록』의 현존본

간행처	현 소장처	간행연도	서지사항
壽文堂	서울대 중앙도서관	天和 3년 (1683) * 간기 상으로는 모두 동일하나, 실제로는 이 중에 후쇄본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20권28책:四周單邊 半郭21.1x16.1cm, 無界, 9行18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26.2x18.3cm
	九州大		20권24책:四周單邊 半郭21.1x15.6cm, 無界, 9行18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27.6x19.7cm, 訓点, 오후리 가나(送り仮名)(右下: 가타카나)
	名古屋大		20권14책:四周單邊 半郭:21.6x15.2cm 無界 9行18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27.3x19.3cm, 訓点, 오후리 가나(送り仮名)
	新潟大		20권:四周單邊,無界, 9行18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12冊:四周單邊, 半郭21.3x15.5cm, 無界, 9行18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25.7x17.9cm
風月堂	筑波大		20권 12책:26.7x17.9cm
	京都大 人文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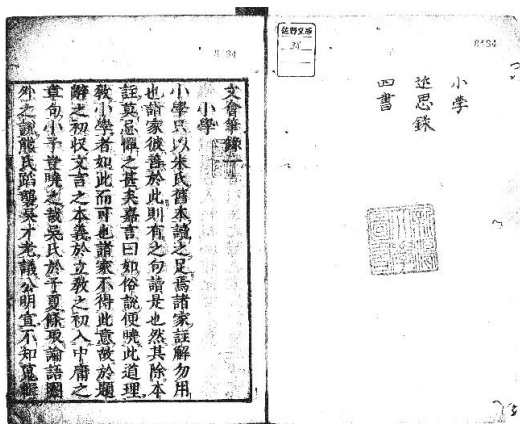
초간본의 권1 「소학」에는 제 53조부터 제 57조까지의 조목이 없는데,¹⁴⁾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서울대본과 新潟大本(니가타대본)은 모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 또한 본문과 간기 부분의 글자체가 다르다는 점 역시 두 판본의 공통점인데, 간기 부분만을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다시 새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찌되었든 두 판본 모두 초간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글에서의 『문화필록』은 판본이 아니라 인용문헌을 비롯한 원문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열람이 가능했던 서울대본과 니가타본¹⁵⁾이 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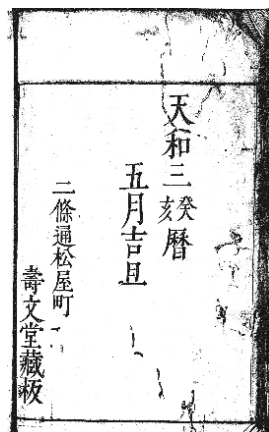
14) 田尻祐一郎・前田勉, “山崎闇齋, 『文會筆錄』卷1「小學」釋稿” 1, 『季刊日本思想史』 17(ペリカン社, 1981), 104.

15) 이미지 출처: <<http://collections.lib.niigata-u.ac.jp/bibliograph/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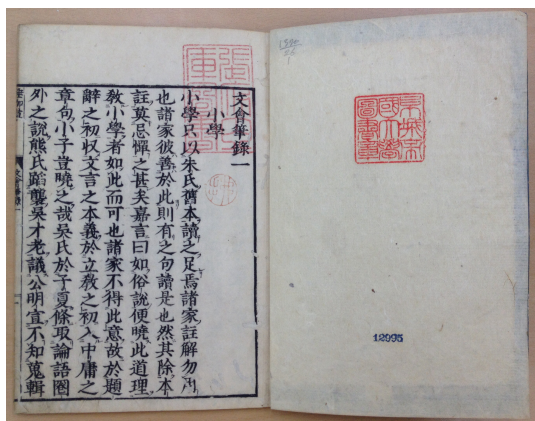
후쇄본이라 하더라도 초간본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후의 내용에서는 이 두 판본의 원문을 토대로 田尻祐一郎・前田勉¹⁶⁾의 고전 일본어 번역을 참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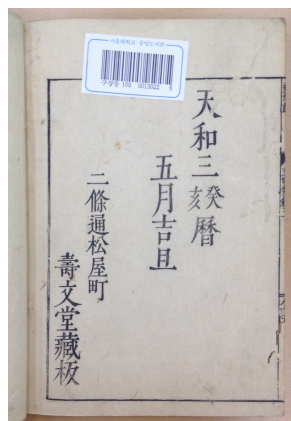
<그림 1>新潟大 소장 『文會筆錄』 권1



<그림 2>新潟大本 간기



<그림 3>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文會筆錄』 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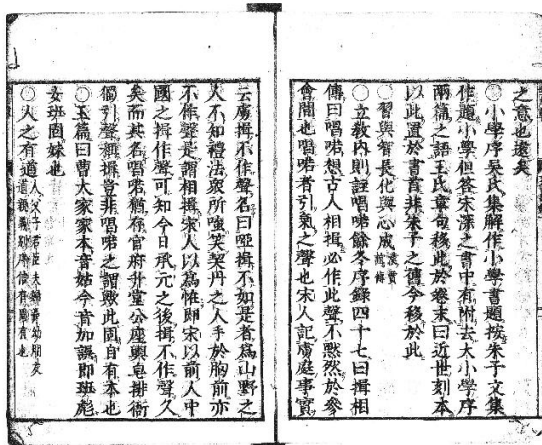


<그림 4> 서울대본 간기

16) 田尻祐一郎・前田勉, “山崎闇齋『文會筆錄』卷1『小學』釋稿” 1-4, 『季刊日本思想史』 17-20 (ベリかん社, 1981-3).

2.2 『문회필록』의 체제

『문회필록』은 「소학」(권1)·「근사록」(권2)·「사서」(권3~6)·「오경」(권7~9)·「濂洛關閩」(권10~20)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책들은 모두 주자학의 이해에 기본이 되면서도, 주희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책들이다. 이는 안사이가 제자들을 교육할 때의 교과서를 주희가 註解한 『四書集註』 및 주희와 呂祖謙이 選撰한 『近思錄』 등에 한정하여 주희의 정신을 철저히 주입시키고자 하였던 점¹⁷⁾을 엿볼 수 있다.



<그림 5> 『문회필록』 권1의 본문 중(新濶大 소장)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권1 「소학」은 처음 안사이의 『소학』의 주석서에 대해 자신의 의견 및 해설을 개진한 후(<그림 1> 참조), 각 조목을 “○”로 표기하여 『소학본주』의 서문을 시작으로 권1 「立教」부터 순서대로 중요한 문장을 채록하거나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한 개념이나 단어의 의미에 대해 다른 문헌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그림 5> 참조). 또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17) 미나모토 료엔 著, 박규태·이용수 譯, 『도쿠가와 시대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2004), 47.

다른 문헌을 인용해두었고, 경우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의 체계는 다른 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각 조목의 내용이 해당하는 『소학』 원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모두 68개의 조목이 있다.

1701년 고지마 무네요시(幸島宗義)가 당시까지 간행된 和刻本에 대해 작성한 서목인 『倭板書籍考』에서는 이 책을 주자학을 생각하는데 편리한 책이라고 하고 있다.¹⁸⁾ 이는 아마도 앞서 언급했듯이 각 챕터에 해당되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안사이가 많은 서적을 참고하여 한 자리에 인용해두었기 때문에 편의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3. 권1 『소학』에 참고된 『소학』 주석서 및 인용문헌의 일본 간행

『소학』은 『문화필록』 권1의 내용적 기반이 되고 있고, 본문 중에도 여러 『소학』의 주석서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17세기 일본에서 간행된 『소학』 주석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전체적인 간행 경향을 알아보고, 『문화필록』에 인용된 책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다만 이 시기 일본인 편저서 - 『小學備考』(貝原篤信), 『大和小學』·『小學蒙養集』·『小學本註』(山崎闇齋) - 는 제외하기로 한다.

3.1 17세기 일본에서 간행된 『소학』 주석서

일본에서 『소학』 주석서는 근세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간행되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중세에도 당시의 목록과 현존본을 통해 이미 들어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나자와 문고의 소장본 중 정리가 완료된 일부의 서적에 대한

18) 『倭板書籍考』卷2 『儒書之部』, 二十卷二十九本アリ. 朱學ヲ考ルニ便リアル書ナリ. 山崎嘉翁ノ作ナリ.

조사목록에 의하면, 文永 7년(1270)에 필사된 권자본 『소학』 1권 1축이 있다. 가나자와 문고의 墨印(6호)이 찍혀있고, “文永七年七月二十四日御京兆女房御中陰之旅亭抄出之畢”이라는 識語가 있다.¹⁹⁾ 또한 에도시대의 고증학자이자 서지학자였던 狩谷掖齋(가리야 에키사이, 1775~1835)가 작성한, 중세이후 유학을 가르쳤던 학교인 아시카가 학교에 대한 장서목록인 『足利學藏書目錄』²⁰⁾에는 元版本 『小學書解』 한 종이 있다. 가리야 에키사이가 쓴 기록에 의하면, 권말에 “學校常住寄進英文”이라 기재되어 있고, 慶長연간(1596~1615) 이전의 것이다.²¹⁾

이외에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목록 상의 다른 유학서-특히 경서류-의 종류도 다양한 편은 아니며, 중국에서 명나라 말기 상업 출판이 흥성하기 전까지 책이 귀했던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현재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소학』은 중국의 여러 경서와 역사서, 성리서 등에서 발췌한 문장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인데,²³⁾ 당시 불교가 모든 것의 주류였던 분위기 속에서 유학 담당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博士家의 훈고학 혹은 아시카가 학교의 易學 중심 교육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학』 주석서가 중요하게 읽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자학의 기초 교재였던 『소학』 주석서의 본격적인 간행 역시 근세 이후 시대적 흐름과 함께한 것이라 생각된다.

17세기 일본에서 간행된 『소학』 주석서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작성 혹은 대상

19) 關靖, 『金澤文庫古書目錄』(巖松堂書店, 1939), 66.

20) 본고에서는 川瀬一馬, 『増補新訂足利學校の研究』(講談社, 1974)에 실린 목록을 참고하였다. 이 책의 저자인 가와세 가즈마는 이 목록이 니이라 사다(新樂定, 1764~1827)가 編錄한, 內閣文庫 소장의 가리야 에키사이의 자필본을 기초로 하되, 니이라 사다가 誤傳한 부분은 다시 주기를 달아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1) 末ニ學校常住寄進英文トセリ。慶長以前ノ事ト見ユ。(川瀬一馬, 『増補新訂足利學校の研究』(講談社, 1974), 266).

22) 이노우에 스스무 著, 이동철 외 譯, 『중국출판문화사』(민음사, 2013), 133-282에 따르면, 송대부터 본격적으로 간본이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고, 여전히 필사가 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송 말부터 명나라 초까지 출판량은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가, 弘治연간(1488~1506)이 되어서야 출판량이 전체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3) 정호훈, 『조선의 『소학』』(소명출판, 2014), 30.

으로 하고 있는 서목 및 현존본을 통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아래의 표는 그 주요한 책과 판본에 대한 것이다.²⁴⁾

<표 2> 17세기 일본에서 간행된 주요 『소학』 주석서

순번	서명	편/주석자	권책수	간행시기	간행자	비고	조선 전기본 유무
1	小學	朱熹 撰 山崎闇齋 點	6권 2책	延寶 4년 (1676)	武村市兵衛	다른 훈점본도 있음	※『小學大文』
2	小學集說	程愈(明)	6권 5책	寬永 연간 (1624~1644)	미상	古活字本	있음
				寬永 20년 (1643)	風月宗知	木版本	
3	小學集註大全	吳訥 集解 陳祚 正誤 陳選 增註	10권 11책	慶安 3년 (1650)	武村市兵衛	陳選의 『小學 句讀』를 採集 한 것. 弘治 연간 王鏊의 序文	없음
			7권 7책	元祿 7년 (1694)	文林堂		
4	小學句讀 (小學集註 혹은 小學增註)	陳選(明)	6권 4책	寬永 2년 (1645)		蓬左文庫 藏	있음
			6권 4책	明曆 2년 (1656)	村上平樂寺		
			6권 4책	寬文 5년 (1665)	上村次郎 右衛門		
			6권 4책	貞享 3년 (1686)	村上彌惣 兵衛	馬場直職 校 延寶 7年(1679) 跋	
				元祿 7년 (1694)		紅葉山文庫 舊藏本	

24) 중국과 조선의 소학의 학문적 전개 및 판본의 간행과 유통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 절에서 다루는 중국과 조선 관련 내용은 다음의 주요 연구를 참조하였다. 金定炫, “『小學集成』元刻本及朝鮮鰾元本研究,” (박사학위논문, 復旦大學, 2011). ; 陳媛, 『朱子の小學論과 한국·중국에서의 변용』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2). ; 정호훈, 『조선의 『소학』』 (소명출판, 2014).

17세기 일본 전래 朱子學書의 간행

순번	서명	편/주석자	권책수	간행시기	간행자	비고	조선 전기본 유무
5	諸儒標題註疏 小學集成	何士信(明)	10권	萬治원년 (1658)	風月庄左 衛門	조선본 (1436刊) 번각본	있음
6	小學集解	吳訥(明)	10권	慶安 3년 (1650)	武村市兵衛		있음
7	小學章句	王雲鳳(明)	6권 4책	寬文 7년 (1667)		昌平坂學問 所本	없음
8	小學合璧	陳選 注 陳際泰 纂輯 陳仁錫 參訂	4권			『廣益書籍 目錄』 (1692)	없음
9	小學書圖		2권			『倭板書籍考』 (1701刊)	있음
10	小學詳解	陶原良(明)				『倭板書籍考』 (1701刊)	없음
11	小學指南大全	周汝壽 補註	6권			『小學句讀』 에 周汝壽의 補註	없음

위의 <표 2>를 통해 17세기 동안 일본에 전래되어 간행된 『소학』 주석서는 주로 明代의 학자들에 의해 여러 주석이 정리되어 종합된 『제유표제주소소학집성』(이하 『소학집성』)·『소학집해』·『소학집설』 등이 간행되었는데, 이 중 陳選의 『소학구두』가 가장 많이 읽힌 만큼²⁵⁾ 많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명대에 나온 새로운 형식의 판본으로 중국에서도 많이 읽혔는데, 지금까지 재간된 횟수가 가장 많은 만큼, 현존본도 한중일 모두 많이 남아 있다.²⁶⁾ 반면, 조선 전기에는 『소학집성』·『소학집설』·『소학구두』·『소학집해』 등이 전래되었으나, 『소학집성』·『소학집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²⁷⁾ 이로 보아, 조선과 일본에 전래되어 주로 간행된 『소학』 주석서는 일종의 종합 주석서로, 이는 중국과 그 경향을

25) 田尻祐一郎・前田勉(1983), 107.

26) 陳媛, “朱子の小學論과 한국·중국에서의 변용,”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2), 105.

27) 정호훈(2014), 32.

같이 하지만, 학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서적으로 본다면,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소학』 주석서의 간행 양상과 학문적인 영향력을 17세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각 같은 시기 중국과 조선에 비교했을 때, 17세기 이후가 훨씬 두 나라에 가까워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문회필록』 권1에서 인용된 책은 『소학장구』·『소학구두』·『소학집해』·『소학집주대전』으로 4종이 보인다. 『소학』 주석서 각 책의 인용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학장구』와 『소학구두』가 가장 많이 보인다.

그러나 전체의 내용적 기반이 되는 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소학집성』이다. 반면, 조선 전기에 간행되어 많이 읽혔던 『소학집설』은 일본에서 고활자본과 목판본으로 간행되기는 하였으나, 『문회필록』 권1에서는 인용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마쓰자와 로센(松澤老泉, 1769~1822)²⁸⁾이 지은 『經籍答問』에는 안사이가 조선본 『소학집성』에 校點을 달아 일본에서 간행하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²⁹⁾ 『문회필록』 권1 서두에서 안사이는 『소학』은 단지 朱熹의 舊本만 읽어도 충분하며, 다른 諸家の 註解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³⁰⁾ 그런데 안사이가 도사에서 주자학 공부를 시작했던 시기에 함께 수학한 노나카 겐잔(野中兼山, 1615~1664)이 『소학구두』를 쓰시마(對馬島)에서 입수하였다.³¹⁾ 이전까지 『소학』 주석서가 없었다가 겨우 구한 책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학』 주석서는 이 책이 처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적어도 두 책을 다 본 안사이는 『소학구두』보다는 『소학집성』이 주자의 본주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안사이는 『소학집성』에서 주희의 주석만을

28) 에도 아사쿠사(淺草)에서 慶元堂이라는 서사를 운영하면서 서적 출판을 함. 당시 유학자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과의 활발한 교류했으며, 『경적답문』 등의 典籍에 대한 연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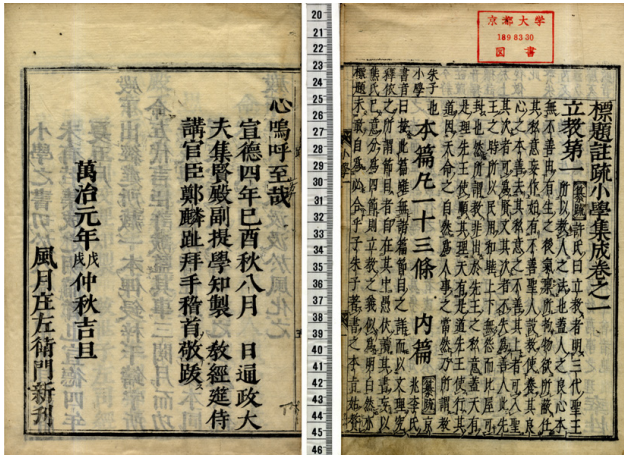
29) 松澤老泉, 『經籍答問』. “此の嘉點本は原來朝鮮本小學集成より闇齋先生拔萃し、校點なされ候物と申され候、小學集成は朝鮮人の作さい、和刻おり.”

30) 山崎闇齋, 『文會筆錄』 卷1 ‘小學’. “小學只以朱氏舊本讀之足焉. 諸家註解勿用也.”

31) 다지리 유이치로 著, 엄석인 譯, 『야마자키 안사이, 일본적 주자학의 원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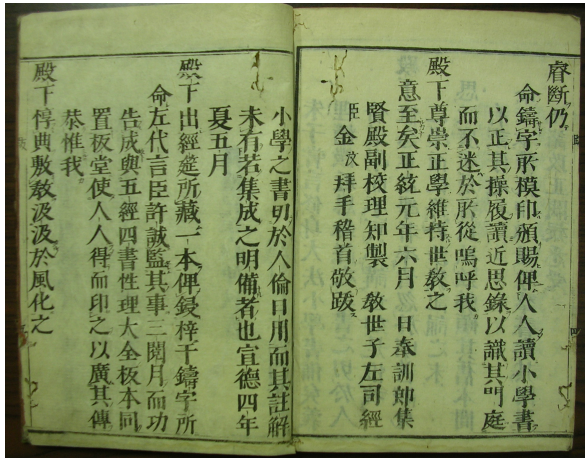
뽑아 『소학본주』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1719년 사행 당시 오사카 西本願寺에서의 필담에 대한 『航海獻酬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미즈타리 헤이잔(水足屏山, 1671~1732)이 신유한에게 주자의 『소학』 원본이 조선에 유통되고 있어서 부럽다면서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안사이가 『소학집성』에서 뽑은 『소학본주』라고 하고 있다.³²⁾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로 봤을 때, 안사이가 당시까지 전래되어 있던 『소학』 주석서 중 『소학집성』을 가장 신뢰한 것으로 보이며, 『문회필록』 권1 『소학』에 기반이 되는 것도 이 책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7세기 일본에서 간행되어 유통된 『소학집성』은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본을 저본으로 한 판본 한 종만이 보인다. 간기에 의해, 1658년 風月庄左衛門(風月堂)에 의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권말에 宣德 4년(1429) 金汶과 鄭麟趾의 발문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그림 6>, <그림 7> 참조).



<그림 6> 『小學集成』 卷首 및 鄭麟趾 발문
(萬治 元年 간행, 京都大 소장)

32) 水足屏山, 『航海獻酬錄』, 問屏山. “聞朱子所學原本行于貴國不勝敬意, 弊邦所行則我先儒閣有山崎氏抄取小學集成所載朱子本注, 而所定之本也.”



<그림 7> 『小學集成』 金汶 跋文
(萬治 元年 간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2 『문회필록』 권1 「소학」의 인용방식 및 인용문헌

『문회필록』에서의 인용방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용례에 따른 규칙성이 있다고도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조목 첫머리에 바로 서명을 제시한 후 원문을 옮겨 놓은 경우
- 『주자문집』·『주자어류』·『옥편』을 인용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다. 권수 혹은 卷題를 제시한 경우도 있다.
- ② 편찬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원문 인용 후 附記로 서명을 밝힌 경우
- ③ 원문 인용 후 附記로 서명만 밝힌 경우
- ④ 서명을 첫머리에 먼저 제시하고 인용 후 附記로 권차 표기한 경우

인용한 원문은 그대로 옮겨 놓은 경우도 있으나, 핵심만 간략하게 인용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 또한 특히 안사이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부연 설명할 때, 원문 인용을 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서명과 권제만 제시한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예로 제시된 인용문헌을 아래의 <표 2>에 『소학』의 권차에 따라 『문화필록』의 해당 조목을 대응시켜 사부분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때 포함된 서적은 각 조목에서 원문 인용된 경우는 물론, 원문 인용 없이 서명만 언급했을 때, 안사이가 그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견을 피력하여 직접 읽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포함시켰다. 나열된 서적의 순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순으로, 같은 권차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한 번만 기입하였다. 그리고 서명은 원문 그대로를 살리되, 원제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생략된 부분을 덧붙여 놓았다.

다만 가장 첫 조목인 안사이의 『소학』의 주석서에 대해 서술한 내용은 『소학』 원전과도 관련이 없고, 언급하고 있는 서명도 인용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또한 「가언」은 앞서 언급했듯이 제 53~57조는 초간본에 없으므로 구분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서명 옆에 편저자명을 괄호 안에 기재하였다.

<표 3> 『소학집성』의 권차 따른 『문화필록』의 내용과 인용문헌

『소학집성』 권차 · 권제		『문화필록』 권1 해당조목	사부분류	인용문헌의 서명(편저자)
序文		제 2~3조	史部	『漢書』
			子部	『(小學)章句』 ³³⁾
권1	入教	제 4~6조	經部	『(大廣益會)玉篇』 · 『孟子』 ³⁴⁾
			子部	『餘冬序錄』
권2~3	明倫	제 7~15조	經部	『禮記』 · 『詩經』 · 『孝經』 · 『纂疏』 ³⁵⁾ · 『小學句讀』 · 『孟子』 · 『中庸』
			子部	『朱子語類』
			集部	『萬首唐人絕句』(洪邁 編) · 『(靜虛齋)惜陰錄』(顧應祥 撰)
권4	敬身	제 16~19조	子部	『朱子語類』
권5~6	稽古	제 20~24조	經部	『尙書』 · 『論語集註』 · 『左傳』 ³⁶⁾
			史部	『史記』
			子部	『小學句讀』 · 『(小學)章句』 · 『小學集解』
			集部	『朱子文集』 ³⁷⁾
外篇 (『嘉言』 · 『善行』)		제 25~26조	經部	『尙書』 · 『禮記』
			子部	『(小學)章句』

『소학집성』 권차·권제		『문회필록』 권1 해당조목	사부분류	인용문헌의 서명(편저자)
권7~8	嘉言	제 27~52, 58조	經部	『詩經』·『論語』·『拘幽操』·『大學』·『古文孝經』·『禮記』
			史部	『史記』·『前漢(書)』·『後漢(書)』
			子部	『讀史管見』(胡寅) ³⁸⁾ ·『淮南子』·『朱子語類』·『句解』 ³⁹⁾ ·『小學集解』·『小學句讀』·『小學(集註)大全』·『(小學)增註』(陳選)·『小學章句』·『異端弁正』·『義楚六帖』·『釋氏要覽』·『鰾譯名義集』·『大集經』·『佛祖統紀』·『祖庭事苑』·『正法念處經』·『程氏遺(全)書』 ⁴⁰⁾ ·『程氏易傳』·『正蒙』·『文子』·『淮南子』·『荀子』·『理窟』(張橫渠)·『千金(要)方』(孫思邈)·『(伊洛)淵源錄』·『困學紀聞』·『朱子行狀』·『近思錄』
			集部	『朱子文集』·『篁墩集』·『(朱子文集)別集』
			미상	『胡氏家錄』·『語錄解義』·『音韻字解』
		제 53~57조	子部	『外書』 ⁴¹⁾ ·『遺書』 ⁴²⁾
권9~10	善行	제 58~68조	經部	『易』
			子部	『自省錄』·『朱子語類』·『理窟』(張橫渠)·『讀書錄』(薛敬軒)·『近思錄補』 ⁴³⁾
			集部	『預章集』
			미상	『文清全集』(薛敬軒)

33) 王雲鳳의 『小學章句』라고 추정하였다(田尻祐一郎·前田勉(1981), 108).

34) 원문을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나, “固有”의 의미에 대한 안사이의 주석이 『맹자』의 내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35) 元 李成己의 『小學纂疏』라고 추정하였다(田尻祐一郎·前田勉(1981), 111).

36) 『春秋經典集解』.

37) 『朱子大全』.

38) 송나라 胡寅(1098~1156)이 紹興 25年(1155)에 완성한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읽고 논평을 더한 것. 福建省 建陽의 書肆인 劉洪慎獨齋에서 간행되었다.

39) 미상. 적어도 『性理群書句解』에는 해당 부분이 없다(田尻祐一郎·前田勉(1983), 111).

40) 二程全書: 二程遺書, 二程外書, 程氏易傳.

41) 『二程全書』 권8 (田尻祐一郎·前田勉(1983), 104).

42) 『二程全書』 권8 (田尻祐一郎·前田勉(1983), 104).

43) 미상. 江起鵬 編의 『近思錄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田尻祐一郎·前田勉(1983), 107).

<표 3>을 통해 안사이가 『소학』을 이해하기 위해 각 부분에서 어떠한 책을 참고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사부분류 안에서 다양하게 인용되었는데, 특히 子部류의 서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經書와 朱熹의 저서 및 송대와 명대 학자들의 주자학서 및 주석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옛 유품이나 지리 등에 대해서는 『한서』와 『사기』 등의 역사서를, 그리고 불교에서 비롯된 개념에 대해서는 佛書도 참고하였고, 『千金要方』⁴⁴⁾이라는 당나라 孫思邈의 의서를 인용하였다.

이 중 『주자어류』는 본문에 직접 인용된 것만 15회로 가장 많이 보이는데, 권1 『소학』에서 전반적으로 인용되었다. 인용 형태는 안사이가 별도의 언급이나 부기 없이 원문만 인용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서적은 주희의 생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용서 중에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책인지 알 수 없는 미상이거나, 추정만 가능하나 확정하기는 어려운 책도 보인다.

3.3 인용된 주자학서의 일본 간행시기

일본에서 17세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을 대상으로, 판종과 편저자의 국적에 따라 분류한 후, 문헌기록이나 현존본의 간기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간행시기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표 4>에 구분해놓았다. 초간본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종이 다른 『近思錄集解』와 『朱子行狀』은 중복하여 기입하였다.

44) 『千金要方』은 일본에서 현존하는 最古 의서인 984년 丹波康瀬가 편찬한 『醫心方』에 이미 인용이 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된 간본인 宋本은 가나자와 문고의 소장본이었으나, 明治 11년(1878) 黃學熙에 의해 중국에 건너가게 되었다(田尻祐一郎·前田勉(1982), 117).

<표 4> 일부 인용문헌의 17세기 일본본 판종 및 편저자 국적에 따른 분류

판종	서명			비고
	중국인 편저자	조선인 편저자	일본인 편저자	
일본 고타자본	『近思錄集解』(1622~1644)	『朱子行狀』 (1661년 이전)		
일본 목판본	『異端弁正』(1642) 『小學句讀』(1645) 『近思錄集解』(1648) 『小學集註大全』(1650) 『小學集解』(1650)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1658) 『困學紀聞』(1661) 『小學章句』(1667) 『朱子語類』(1668) 『理窟』(1660년대 이전) 『(伊洛)淵源錄』(1670년 이전) 『讀書錄』(1670년 이전) 『朱子大全』(1670년 이전) 『程氏遺[全]書』(1670년 이전)	『自省錄』(1665) 『朱子行狀』(1665)	『拘幽操』(1692)	
일본본 미확인	『正蒙』(張橫渠 著)			
미상	『胡氏家錄』			

이들 서적 중 중국인 편저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조선의 퇴계 이황 관련 서적과 일본인인 안사이의 저서가 있다. 중국인 편저자 중 주자학서는 송대의 사람이 많으나, 판본 상의 특징이나 서발문의 작성 시기를 통해 명말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서적이 대다수이다.

또한 중세까지 전래되어 있던 주자학서는 현존본과 문헌기록으로 봤을 때 매우 드물다는 점, 목판본 서적의 첫 간행 시기가 17세기 중반으로 비교적 늦다는 점, 명말 중국본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들 서적들은 에도 막부 초기에 특히 많은 양이 유입되었다는 점⁴⁵⁾ 등을 고려해보면, 이들 서적이 일본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

45) 오오키 야스시 著, 노경희 譯,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출판, 2007), 270.

한 것은 寛永연간(1622~1644) 이후 일 것이라 생각한다. 고활자본은 1593년 文祿勅版을 시작으로 17세기 전반까지 약 50년간 사용되다가 간에이 연간이 되면, 앞서 말했듯이 고활자본이 서서히 쇠퇴하는 동시에 목판본이 상업출판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위의 표에서는 寛文 연간(1661~1673)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세를 통틀어 일본에서 출판물의 양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元祿연간(1688~1704)이었는데, 간분 연間は 이러한 흐름의 상승세를 타던 시기였으므로, 이 표만 가지고 이 시기에 간행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중 『근사록집해』와 『주자행장』은 고활자본과 목판본, 두 종의 판종이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활자본은 근세 초에 잠시 사용되어 간행된 종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목판본 서적에 비해 빨리 간행된 만큼 일본에의 전래 시기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빨랐던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할 점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두 책의 고활자본은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림 8> 일본 고활자본 권수(일본 국회도서관)

고활자본 『근사록집해』는 간에이 연간(1622~1644)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⁴⁶⁾ 목판본은 1648년 교토의 서사인 風月堂에서 간행되기 시작하여 이후 여러 서사에서 간행되다가 간분 연간 이후 역시 교토의 서사인 吉野屋權兵衛가 板元이 되어 이 책을 전담하여 간행하였음을 현존본의 간기와 판원이 기재된 서목인 『增補書籍目錄大全』(1696년 刊)을 통해 알 수 있다. 송나라 葉采가 집해한 이 책은 일찍부터 중국과 조선에서 주자학의 기본 텍스트로 널리 읽히고 있었는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많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주자행장』은 송나라 黃幹이 편찬한 것을 李滉(1501~1570)이 보완한 것인데, 목판본의 초간본인 간분 5년(1665) 교토의 서사 村上平樂寺에서 간행한 판본은 글자체가 고활자본을 닮아 있으며, 글자의 배열도 동일하다. 따라서 고활자본을 저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수제 밑에 있는 저자표시가 고활자본은 “退溪李滉先生集注”라고 되어 있으나, 목판본에는 “退溪李滉 集注”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이 판본은 이후 正德 2년(1712)에 壽文堂에서 간행되었는데, 板元이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표 4>에서 일본본 미확인인 책들은 특히 모두 명말 방각본으로 보여 지는데, 이 서적들은 현재 화각본으로는 물론,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 물론 기록되지도 않고, 현존본으로도 남아 있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이미 강남 지역의 중국본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일본에서 간행되지 않았더라도 안사이가 중국본을 입수해서 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17세기 후반 서사 조합이 만들어지고 출판권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수요가 많고 저본을 구하기 쉬운 책이라면 여러 서사에서 간행했으리라 생각되며,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저본이 된 판본 역시 다양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일본본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正蒙』은 張橫渠가 지은 것으로 『근사록』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간접 인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16세기 말 17세기 초에는 주로 기존의 고활자본 간행본은 주로 기존에 일본에 전래되어 있던 책들을 기반으로, 17세기 전반

46)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所藏 古活字版圖錄』(汲古書院, 1989), 36.

출판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임진왜란 때 들어온 조선 전기본,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명말 방각본을 저본으로 본격적인 주자학서 및 관련 인물의 문집 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간행된 주자학서가 보다 더 다양해지고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화필록』 권1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권차에는 여기에서는 인용되지 않은 여타의 많은 서적들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전체적인 출판 경향을 알 수 있는 1660년대 이후 약 10년 단위로 있는 서적목록의 추이와 대조해보면 큰 틀에서는 함께 하고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17세기까지 일본에 중국, 그리고 중국에서 조선을 거쳐 들어온 판본이 다양하게 전래되어 간행되었음을 야마자키 안사이의 『문화필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야마자키 안사이는 정권이 바뀌고, 일본의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중국과 조선에서 전래된 서적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새로운 지식과 상업출판의 성장하던 시기에 주자학을 가장 충실하게 연구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문화필록』은 주자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소학』·『근사록』·『사서오경』 등 여러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각 내용에 대하여 다른 문헌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안사이가 각각의 주요 주자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서적을 접하였는지는 물론, 이들 서적들은 결국 적어도 일본에 전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 주자서에 대한 동아시아 출판 경향 및 서적 교류에 대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시작점으로 『문화필록』 권1 『소학』에 한하여 인용된 문헌과 그 일본 간행 여부를 판종 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용문헌에는 송대 학자들이 편저한 주자학서를 중심으로 역사서와 문집, 경서 등이 활용되었고, 중국의 지리나 불교용어나 비판하기 위한 근거 및

의학적 지식과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경우 그에 맞는 역사서, 불서 및 의서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인용문헌의 간행은 일본 근세 초간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근세 초에 잠시 사용되었던 고활자본부터 있었는데, 이들 서적 중에는 중세에 이미 일본에서 간행된 것도 있었다. 간에이 연간 고활자본 인쇄가 쇠퇴하고 상업출판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목판 인쇄가 주를 이뤘는데, 인용문헌 중 일본 간본 대부분은 이 시기 이후의 것들이며, 이들 저본은 대부분 중국 명말의 간본이었다. 또한 이들 서적은 모두 일본에서 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안사이가 일본에 들어온 중국본을 그대로 입수해서 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권1『소학』에 한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문화필록』의 인용문헌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파악한 내용은 당시 일본 출판문화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부합하고 있으나, 나머지 권차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주자서에 대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출판양상 및 유통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원전 및 자료

山崎闇齋. 『文會筆錄』.

松澤老泉. 『經籍答問』.

水足屏山. 『航海獻酬錄』.

幸島宗意. 『倭板書籍考』.

岡直養 編 楠本碩水 外 補. 『崎門學脈系譜』. 1903.

2. 단행본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所藏 古活字版圖錄』. 汲古書院, 1989.

關靖. 『金澤文庫古書目錄』. 巖松堂書店, 1939.

미나모토 료엔 著, 박규태 · 이용수 譯. 『도쿠가와 시대의 철학사상』. 서울: 예문서원, 2004.

오오키 야스시 著, 노경희 譯.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서울: 소명출판, 2007.

이노우에 스스무 著, 이동철 외 譯. 『중국출판문화사』. 서울: 민음사, 2013.

정호훈. 『조선의 『소학』』. 서울: 소명출판, 2014.

川瀬一馬. 『増補新訂足利學校の研究』. 講談社, 1974.

3. 논문

本村昌文. “山崎闇齋『文會筆錄』卷3「四書」大學譯注稿.” 1-3. 『季刊日本思想史』 71・73-74(ぺりかん社, 2007~2009).

市來津由彦. “山崎闇齋『大和小學』考 - 中國新儒教の日本的展開管見 -.” 『國際文化研究科論集』 1(1994).

嚴錫仁. “朱子後繼者としての山崎闇齋の思想營爲: 理氣論お中心として.” 『日本研究』 8(2000).

田尻祐一郎・前田勉. “山崎闇齋『文會筆錄』卷1「小學」釋稿.” 1-4. 『季刊日本思想史』 17-20(ぺりかん社, 1981~1983).

陳媛. “朱子の小學論과 한국・중국에서의 변용.”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2.

